

고1  
공통국어1  
창비

2027 고1 공통국어1 창비 | 3(1) 인간과 동물의 공존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이 단원에서는 제재 글인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핵심 개념의 의미를 묻는 문제, 글의 논증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본문의 논증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근거 자료를 찾는 문제와, 신문 기사 및 설문, 그래프 자료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글의 핵심 주장과 그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설문 조사의 질문 방식 차이가 답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프가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등 매체 자료의 해석과 활용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두어야 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연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이다. 오랫동안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적 산업과 달리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900만 마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평균 330마리의 반려동물이 매일 버려진다고 하니, 이는 편리하게 구매했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만든 숫자일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적 조건은 '소유' 관계이다. ①우리에겐 동물은 '생명' 이전에 '소유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을 뜻하고, 여기에서 '자본'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일체의 것을 가리킨다.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라고 말했다. 소유 관계에서 소유의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나'와 '내가 가진 것'의 관계는 살아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소유 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 있는 대상도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죽은 것, 즉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체일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생명을 지닌 존재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심지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나 펫 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가령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영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펫 숍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일들은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하므로 동물을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런 반론이 나온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팔았고 그 때에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으니,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것이

[A] 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저 반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익이 아닌 실용적·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던 점이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착하기 이전 시대에도 존재했다.
- ② 전통적 산업 분야가 저성장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 ③ 영국은 어린 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에 나섰으나, 미국은 펫 숍 거래에 대해 별다른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 ④ 오늘날 우리가 동물을 만나는 펫 숍이나 동물원 같은 공간은 대부분 돈과 이익을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진다.
- ⑤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의 약 1.5 배에 해당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이 인식이 생명체인 동물을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 ② 에리히 프롬의 견해를 빌려 해석하면, 이는 소유의 대상이 되는 순간 생명력을 잃고 권력에 복종하는 존재로 변질됨을 의미한다.
- ③ 글쓴이는 ‘소유’의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체일 때, 그 대상을 물건처럼 다루게 되면서 윤리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 ④ 글쓴이는 금전을 대가로 동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 대상을 자신의 의지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한다.
- ⑤ 글쓴이는 무생물을 소유할 때는 ‘나’와 ‘대상’이 살아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동물을 소유할 때는 죽은 관계가 된다고 본다.

3.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 ②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동물 거래가 가진 목적과 규모의 차이를 들어 재반박하고 있다.
- ③ 자본주의 체제가 가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권위 있는 경제학자의 이론을 인용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④ 반대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자신의 논지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동물 거래의 역사적 기원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며 자본주의가 동물권 향상에 기여한 바를 강조하고 있다.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연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이다. 오랫동안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적 산업과 달리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900만 마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내지 상

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평균 330마리의 반려동물이 매일 버려진다고 하니, 이는 편리하게 구매했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만든 숫자일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적 조건은 '소유' 관계이다. 우리에게 동물은 '생명' 이전에 '소유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을 뜻하고, 여기에서 '자본'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일체의 것을 가리킨다.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라고 말했다. 소유 관계에서 소유의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나'와 '내가 가진 것'의 관계는 살아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소유 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 있는 대상도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죽은 것, 즉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체일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생명을 지닌 존재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심지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하므로 동물을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런 반론이 나온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팔았고 그때에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으니,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저 반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아주 오래 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공장식 축산'과 '도축의 산업화', 즉 '육류 산업'이다. '소유'가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둔갑시킨다면, '육류 산업'은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으로만, 오직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낳는다.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되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어떤 동물이 동물 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동물이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이라는 의미이다.

인류는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위계를 설정했을까?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인간을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인간 아닌 생명체들 간의 차이, 가령 개와 고양이의 차이, 늑대와 너구리의 차이 등을 간단히 무시한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가 종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이는 법으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동물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은 윤리학자 피터 싱어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동물권 주장자들은 믿음·지각·기억·욕구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삶의 주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다.

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상되는 반대 측의 견해를 언급한 뒤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하여 양쪽 모두가 만족할 만한 중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인간 중심주의’, ‘종 차별주의’ 등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④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인 피터 싱어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⑤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이 형성된 배경을 자본주의, 육류 산업, 철학적 사고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유형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의 세부 내용과 논증 방식을 묻는 문제 외에도, 제재 글에 제시된 ‘피터 싱어’의 관점을 <보기>의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문제, 본문의 철학적 입장과 <보기>로 제시된 다른 철학자의 관점을 비교·대조하는 문제, 지문에 사용된 핵심 어휘의 사전적 의미나 문맥상 바꿀 수 있는 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 핵심 인물의 관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예시나 다른 관점과 비교, 적용하는 심화 학습이 중요합니다.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5.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과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 ② 서구의 근대 철학은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 ③ 현대 사회의 동물 거래는 과거의 실용적 목적과 달리 대규모의 상업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 ④ 생명을 다루는 산업의 경우, 일반 상품과 달리 윤리적 문제와 대중의 인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⑤ 살아 있는 생명체를 무생물과 같은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윤리적으로 곤란한 문제를 일으킨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연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이다. 오랫동안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적 산업과 달리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900만 마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평균 330마리의 반려동물이 매일 버려진다고 하니, 이는 편리하게 구매했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만든 숫자일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적 조건은 ‘소유’ 관계이다. 우리에게 동물은 ‘생명’ 이전에 ‘소유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을 뜻하고, 여기에서 ‘자본’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일체의 것을 가리킨다.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라고 말했다. 소유 관계에서 소유의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나’와 ‘내가 가진 것’의 관계는 살아 있

는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소유 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 있는 대상도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죽은 것, 즉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체일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생명을 지닌 존재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심지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나 펫 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가령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영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펫 숍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일들은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하므로 동물을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런 반론이 나온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팔았고 그때에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으니,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저 반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아주 오래 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익이 아닌 실용적·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공장식 축산'과 '도축의 산업화', 즉 '육류 산업'이다. '소유'가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둔갑시킨다면, '육류 산업'은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으로만, 오직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

도를 낳는다.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되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어떤 동물이 동물 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동물이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이라는 의미이다.

2008년 미국의 영화감독 로버트 케너가 만든 기록 영화 「푸드 주식회사」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 준다. 이 영화는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 특히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오게 되었는가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이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의 실체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육류는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다. 반려동물인 강아지의 상당수가 '강아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듯이, 식품으로서의 육류 역시 기업에 의해 생산된 사실상의 '공산품'이다. 오래전에 인류가 사냥 등을 통해 자연에서 획득한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다.

육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반론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먹었으며, 인간 또한 동물이기에 '영양' 섭취를 위해서 동물을 먹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육식이 그토록 시급한 문제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세상에는 종교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 문화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고,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한 사람들이 많다. 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등 일부 선진국에 국한된 이야기겠지만, 오히려 현대인은 비만·당뇨·콜레스테롤 혈증·성인병 등의 각종 현대적 질환 때문에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고 있다. 또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육류 산업'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기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동물에 관한 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자본주의의 탓은 아니다.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학대는 '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의 대부분은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주체'인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발생한다.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방식,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수단이고 도구라는 생각은 오래전에도 있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간 중심주의 또는 종 차별주의라고 부른다. 인간 중심주의란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종 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구성원들에게는 하지 않을 행동을 다른 종에게는 저지르는 '차별'의 논리를 의미한다.

인류는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위계를 설정했을까?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인간을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인간 아닌 생명체들 간의 차이, 가령 개와 고양이의 차이, 늑대와 너구리의 차이 등을 간단히 무시한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가 종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이는 법으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동물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은 윤리학자 피터 싱어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동물권 주장자들은 믿음·지각·기억·욕구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삶의 주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다. 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과 맺고 있는 관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또는 그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듯이, 동물을 소유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에야 올바른 의미의 '공존'이 가능해진다.

누군가가 '동물권'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동물이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주체로, 나아가 인간의 진정한 반례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동물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 고봉준, 『나는 반려동물과 산다』 중,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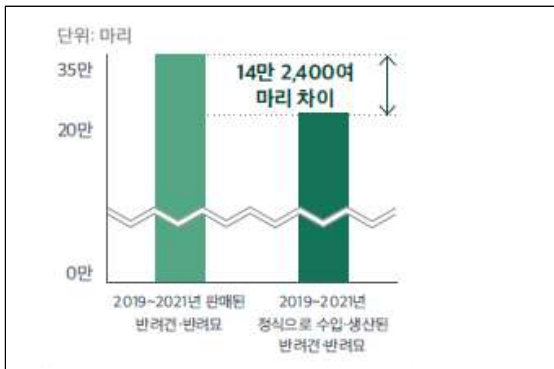
## 6.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려동물 산업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 ② 소유 관계에서는 주체가 대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체를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③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펫 숍에서 번식장 출신의 강아지를 두 마리 판매할 경우 총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 ④ 동물 학대 처벌 법규에서 식용 동물을 제외하는 것은 동물을 생명이기 이전에 음식으로만 바라보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⑤ 피터 싱어는 동물이 인간처럼 믿음, 지각, 기억, 욕구 등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들어 동물과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외 각국에서 반려동물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입양하는 문화가 정착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는 펫 숍이 성업 중이다. 펫 숍의 이면에는 참혹한 환경에서 강아지들을 임신과 출산을 반복시키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2022년 9월 국정 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 국회의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10마리 중 4마리가 불법 번식으로 유통됐다고 주장했다. ○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 구역별 동물 판매업 영업 실적’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 동안 판매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35만 3,132마리다. 그러나 정식으로 수입·생산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21만 694마리에 그쳐 약 14만 2,400여 마리 차이가 난다. ○ 의원은 판매를 통해 분양된 반려동물 대부분이 1년 미만임을 감안할 때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동물의 40.3퍼센트는 불법 번식 유통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해외에서는 펫 숍이 사라지는 추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미국 51개 주 중에서 처음으로 펫 숍 판매를 금지했다. 미국 외에도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펫 숍을 통한 반려동물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대신 해외에서는 유기견 보호소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유기견 보호소 입양도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 최소 몇 주 동안 보호소에 방문해야 하며 금전과 시간 여유가 있는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심사받는다. 일부 주에서는 자격 검증 시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 『○○ 뉴스』, 2023년 5월 12일 기사

**10. <보기>를 비판적으로 읽고, 이를 활용해 뒷글을 보완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설문 1]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진열장에 동물을 넣어 두고 파는 ‘펫 숍’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인식은 다음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 일반적인 반려동물 가게일 뿐이다. ....42.9%
-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파는 부적절한 판매 업장이다. ....51.2%
- 한 번도 본 적 없다. ....5.9%

[설문 2] 태어난 동물이 경매장을 통해 펫 숍에 공급되며, 팔리지 않은 동물은 다시 번식장으로 보내지거나 식용견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 대량 생산 및 구매 체계를 동물권 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명백한 동물권 침해이다. ....49.0%
- 동물권 침해 여지가 있다. ....42.0%
- 동물권 침해가 아니다. ....9.0%

▲ 출처: 리얼리서치코리아(2023)

- ① [설문 1]은 펫 숍을 일반적인 가게로 인식하는 비율과 부적절하게 인식하는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아, 펫 숍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② [설문 1]은 응답자의 과반수가 펫 숍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펫 숍 운영을 옹호하는 반론의 근거로 활용하여 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설문 2]는 동물권 침해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존재하므로, 펫 숍 규제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데 활용하

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설문 1]이 [설문 2]보다 펫 습의 현실적인 모습을 더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설문 1]을 중심으로 글의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설문 2]는 질문 자체에 펫 습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응답의 신뢰도가 낮으므로, 글의 보완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나 펫 습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가령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영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펫 습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일들은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하므로 동물을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런 반론이 나온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팔았고 그때에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으니,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저 반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던 점이다.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공장식 축산’과 ‘도축의 산업화’, 즉 ‘육류 산업’이다. ‘소유’가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둔갑시킨다면, ‘육류 산업’은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으로만, 오직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낳는다.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되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어떤 동물이 동물 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동물이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이라는 의미이다.

(중략)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자본주의 탓은 아니다.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학대는 ‘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의 대부분은 동물이 인간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이므로 ‘주체’인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발생한다.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방식,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수단이고 도구라는 생각은 오래전에도 있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간 중심주의 또는 종 차별주의라고 부른다. 인간 중심주의란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종 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구성원들에게는 하지 않을 행동을 다른 종에게는 저지르는 ‘차별’의 논리를 의미한다.

인류는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위계를 설정했을까?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인간을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인간 아닌 생명체들 간의 차이, 가령 개와 고양이의 차이, 늑대와 너구리의 차이 등을 간단히 무시한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가 종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이는 법으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동물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은 윤리학자 피터 싱어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동물권 주장자들은 믿음·지각·기억·욕구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삶의 주체라고 ㉡ 지적한다.

따라서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 모색하는 데 있다. 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과 맺고 있는 관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또는 그 사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듯이, 동물을 소유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에야 올바른 의미의 '공존'이 가능해진다.

누군가가 '동물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동물이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주체로, 나아가 인간의 진정한 반례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동물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률 제정만으로는 동물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동물을 생명 그 자체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③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물을 이용한 산업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 ④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학문적 토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 ⑤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을 계승하여 인간과 동물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 12.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피터 싱어가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② 동물 학대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어떤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가?
- ④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주요 원인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 ⑤ 현행 동물 보호법상 '식량 동물'로 분류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동물의 종류는 무엇인가?

### 13.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규칙이나 법령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② ㉡: 어떤 물건을 많이 만들어 냄. 또는 그런 현상을 빗대어 이르는 말.
- ③ ㉢: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
- ④ ㉠: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리·부정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
- ⑤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14.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손을 내밀면 연하고 보드라운 혀로 손등이며 불을 쓰옥, 싹 활아주며 간지럼을 태우던 흰둥이. 보신탕 감으로 내다 팔아야겠다고 어머니가 알아 누우신 아버지의 약봉지를 세던 밤, 나는 아무도 몰래 대문을 열고 나가 흰둥이 목에 걸린 쇠줄을 풀어주고 말았다. 어서 도망가라. 멀리멀리 자꾸 뒤돌아보는 녀석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가슴이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멀리멀리 달아났으리라 믿었던 흰둥이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와서 그날따라 꾸밈하게 나온 밥그릇을 바닥까지 달디달게 핥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어린 나는 그에 꼭 참고 있던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흰둥이는 그런 나를 다만 젖은 눈빛으로 활아주는 것이었다. 개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쓰옥, 싹 혀보다 더 축축이 젖은 눈빛으로 활아주고만 있는 것이었다.

- 손택수, 「흰둥이 생각」

- ① '개장수'에게 흰둥이는 생명이 아닌 거래의 대상이자 '잠재적인 식량'으로 인식되고 있군.
- ② '나'가 흰둥이를 위해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동물을 인간보다 낮은 위계에 둬으로써 '종 차별주의'를 드러내는 행동이군.
- ③ '흰둥이'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 행동은 동물에게도 기억이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어 삶의 주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군.
- ④ '나'가 흰둥이를 보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동물의 고통과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을 '동반자'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⑤ '어머니'가 흰둥이를 팔려 한 것은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보다는 생계와 관련된 '실용적·현실적인 목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군.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연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이다. 오랫동안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적 산업과 달리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900만 마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평균 330마리의 반려동물이 매일 버려진다고 하니, 이는 편리하게 구매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만든 숫자일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적 조건은 '소유' 관계이다. 우리에게 동물은 '생명' 이전에 '소유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을 뜻하고, 여기에서 '자본'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일체의 것을 가리킨다.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다른 사람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라고 말했다. 소유 관계에서 소유의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나'와 '내가 가진 것'의 관계는 살아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소유 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 있는 대상도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죽은 것, 즉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것이 생명체일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생명을 지닌 존재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심지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마트나 펫숍의 진열장, 동물원, 대형 수족관과 서커스장 등은 모두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이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㉞사고파

는 일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 가령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영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펫 숍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다. 이러한 일들은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하므로 동물을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런 반론이 나온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팔았고 그때에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으니,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본주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저 반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아주 오래 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팔았지만 그것은 상업적 이익이 아닌 실용적·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였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공장식 축산’과 ‘도축의 산업화’, 즉 ‘육류 산업’이다. ‘소유’가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둔갑시킨다면, ‘육류 산업’은 생명체인 동물을 잠재적인 ‘식량’으로만, 오직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낳는다.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되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어떤 동물이 동물 학대 금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그 동물이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이라는 의미이다.

(중략)

인간이 동물보다 고귀하다는 사고방식,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나 수단이고 도구라는 생각은 오래전에도 있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간 중심주의 또는 종 차별주의라고 부른다. 인간 중심주의란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종 차별주의는 자신이 속한 종의 구성원들에게는 하지 않을 행동을 다른 종에게는 저지르는 ‘차별’의 논리를 의

미한다.

인류는 언제부터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위계를 설정했을까?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인간을 기준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인간 아닌 생명체들 간의 차이, 가령 개와 고양이의 차이, 늑대와 너구리의 차이 등을 간단히 무시한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동물을 식량으로만 간주하는 도구적 인식,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가 종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이는 법으로 특정한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동물권’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동물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람은 윤리학자 피터 싱어이다. 그는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게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성’이나 ‘언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터 싱어는 감성적 능력에 해당하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동물권 주장자들은 믿음·지각·기억·욕구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삶의 주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동물’에 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다. 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과 맺고 있는 관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또는 그 사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듯이, 동물을 소유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에야 올바른 의미의 ‘공존’이 가능해진다.

누군가가 ‘동물권’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동물이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이 아닌 생명으로, 주체로, 나아가 인간의 진정한 반역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동물에게 ㉔주어지는 권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15. 밑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물권에 대한 다양한 학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②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가로막는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인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의 변천사를 통시적으로 나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 ④ 동물을 소유물로 여기는 자본주의적 관점을 옹호하며 이에 대한 반론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16.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카르트를 비롯한 근대 철학자들은 동물이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점에 동의했다.
- ② 과거 인류의 동물 거래는 현재와 달리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이 컸다.
- ③ 동물 학대 처벌법에서 식용 동물이 제외되는 것은 동물을 생명체보다 음식으로 보는 인식 때문이다.
- ④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가 확립되면서 살아 있는 생명체인 동물도 물건과 같은 지위로 전락하게 되었다.
- ⑤ 현대 사회에서 동물을 둘러싼 문제는 법률 제정만으로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17. 문맥상 ㉔~㉚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사육(飼育)되는
- ② ㉕: 매매(賣買)하는
- ③ ㉖: 변화(變化)하먼
- ④ ㉗: 수용(受容)할
- ⑤ ㉘: 수여(授與)되는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③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벌금을 물리므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가 존재했다는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있다.
- ② 전통적 산업과 달리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 ④ 마트, 펫숍, 동물원 등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은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 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0만 가구이고,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 수는 900만 마리이므로 1.5배에 해당한다.

### 2. 정답 ⑤

글쓴이는 소유 관계에서 '나'와 '대상'의 관계는 살아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생물을 소유할 때 큰 문제가 없지만 동물을 소유할 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생물을 소유할 때 살아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다.

- ① 글쓴이는 동물을 소유물로 간주하는 인식이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여기게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본다.
- ② 에리히 프롬의 말을 인용하여 소유가 대상을 죽은 것,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고 설명한다.
- ③ 소유의 대상이 생명체일 경우,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하게 되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 ④ '소유한다는 것'은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 3. 정답 ②

[A]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 거래가 있었다는 예상 반론에 대해, 과거의 거래는 상업적 이

윤이 아닌 실용적·현실적 목적이었으며 거래의 규모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차이점을 들어 재반박하고 있다.

- ①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필요성을 옹호하고 있다.
- ③ 경제학자의 이론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 ④ 반대 측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재반박을 통해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자본주의가 동물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내용은 없다.

### 4. 정답 ②

이 글은 동물을 소유물이나 식량이 아닌 생명과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판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서로 대립하는 관점을 절충하여 중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 ①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 거래가 있었다는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목적과 규모의 차이를 들어 재반박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인간 중심주의', '종 차별주의' 등의 용어를 정의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④ 동물권 논의와 관련하여 윤리학자 피터 싱어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⑤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이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육류 산업, 철학적 사고 등이 종합되어 형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 5. 정답 ①

글쓴이는 법으로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내려놓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 ② 데카르트 이후 근대 철학자들은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이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의 토대가 되었다.
- ③ 현대의 동물 거래는 과거와 달리 상업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 ④ 생명체인 동물을 다루는 산업은 일반 상품과 달리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 ⑤ 살아 있는 대상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으면 생명

을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6. [정답] ④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되는 것은 동물을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으로 보는 것으로, 동물을 음식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② 소유 관계는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살아 있는 대상을 소유하면 물건처럼 취급하게 되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③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번식장 출신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으므로, 두 마리를 판매하면 총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⑤ 피터 싱어는 고통을 기준으로 동물과 인간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으며, 믿음·지각·기억·욕구 등을 근거로 든 것은 '최근의 동물권 주장자들'이다.

7. [정답] ③

필자는 동물을 화폐와 이익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는 '물건'이나 '상품'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을 규제해야 함을 주장한다.

① 필자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산업 규모의 성장을 사실로 언급했을 뿐, 인구 증가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식 수준이 산업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② 자본주의가 인간의 행위를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으나,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④ 필자는 육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반론으로 소개한 뒤, 현대인은 각종 질환 때문에 육식을 줄이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반박한다.

⑤ 필자는 이성이나 언어를 기준으로 동물을 낮게 대했던 데카르트 등의 학자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8. [정답] ②

철학자 에리히 프롬의 말을 인용하여 '소유'가 모든 것을 죽은 것, 권력에 복종하는 것으로 변형시킨다고 설명하며, 생명체를 소유의 대상으로 삼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① 상반된 두 이론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권에 대한 특정 관점을 소개하며 주장을 전개한다.

③ 반론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과거와 현재 거래의 목적과 규모 차이를 들어 재반박하고 있으므로 전면 수용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용어의 정의를 통해 인식이 변화한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분석하고 있다.

⑤ 해외의 입법 사례를 언급했지만, 글의 결론에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공존 방식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9. [정답] ⑤

㉠에는 현재 동물에 대한 인식으로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뒷받침할 근거가 들어가지 않는다. ⑤는 동물 복지가 개선되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이므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유기 동물 증가, 열악한 번식장, 가혹한 동물 쇼, 길고양이 혐오 범죄 등은 모두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근거로 적절하다.

10. [정답] ①

[설문 1]에서 펫 습을 '일반적인 가계'로 인식하는 비율(42.9%)과 '부적절한 입장'으로 인식하는 비율(51.2%)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응답자의 인식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 주므로, 펫 습 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② 응답자의 과반수(51.2%)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므로, 펫 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③ [설문 2]에서 동물권 침해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9.0%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타당하다.

지 않다.

④ [설문 1]은 펫 습의 겉모습만을 제시한 반면, [설문 2]는 이면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응답자의 판단을 도왔다. 펫 습의 현실적인 모습을 더 잘 드러낸 것은 [설문 2]이다.

⑤ [설문 2]는 펫 습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대다수가 명백한 동물권 침해 또는 침해 여지가 있다고 응답하게 했으므로, 펫 습 규제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더 적합하다.

11. **정답** ②

글쓰이는 법으로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권'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① 법률 제정에 한계가 있는 것이 동물권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는 아니다.

③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동물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④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학문적 토대를 세우기 위해 동물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⑤ 인간과 동물의 위계질서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정답** ⑤

본문에서는 동물 학대 처벌 법규에서 식량 동물이 제외된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을 뿐, 식량 동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언급하지 않았다.

① 피터 싱어는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기준으로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② 식량 동물은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학대 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미국 캘리포니아의 벌금 제도, 영국의 펫 습 판매 금지 등 구체적인 규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④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 육류 산업,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13. **정답** ④

㉠의 '지적한다'는 '꼭 집어서 가리키다'의 의미로 쓰였다.

①, ②, ③, ⑤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14. **정답** ②

화자가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흰둥이가 잡혀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멀리 달아나게 하려는 행동이다. 이를 종 차별주의적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개장수는 흰둥이를 생명이 아닌 돈벌이 수단이나 식량으로 보고 있다.

③ 흰둥이가 집을 찾아온 것은 기억력과 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보여 준다.

④ 화자의 울음은 동물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⑤ 어머니의 행동은 아버지를 위해 약값을 마련하려는 현실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15. **정답** ②

이 글은 현대 사회에서 동물을 대하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 원인을 자본주의, 육류 산업 등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인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① 피터 싱어의 견해를 빌려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설을 절충하고 있지 않다.

③ 법적 규제의 변천사를 나열하거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지 않다.

④ 자본주의적 관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다.

⑤ 반려동물 수에 대한 조사는 그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음을 드러내는 데 쓰였다.

16. **정답** ⑤

글쓰이는 법으로 행동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물 관련 문제는 법 제정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① 데카르트 등 근대 철학자들은 동물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② 과거의 동물 거래는 상업적 이윤이 아닌 실용적 목적이었으며 규모도 제한적이었다.

③ 식량 동물은 동물이기 이전에 식량으로 인식된다.

④ 자본주의적 소유 관념은 살아 있는 생명체인 동

물도 물건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17. 정답 ⑤

상장이나 훈장 따위를 준다는 뜻의 ‘수여(授與)’는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축이나 짐승을 먹여 자라게 한다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 ② 물건을 팔고 산다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 ③ 모양이나 성질이 달라진다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 ④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므로 적절하다.